

‘ 스스로 익히는 공공형 모꼬지 시범사업 ’ 을 마치고

2021년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어 민간보육의 공보육화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열정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즈음, ‘ 공공형 모꼬지 ’ 시범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 모꼬지 ’ 가 뭘까? 하며 관심으로 시작했지만 취지를 알게 되고는 전국 6개팀으로 선정되는 기회를 꼭 가지고 싶었습니다.

공공형 모꼬지 시범사업 신청시기에 우리 지역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이 9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총 12개소에서 국공립으로 전향한 3개소를 제외하고 남은 9개소 중 늘 남다른 보육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던 원장님들과 시범사업 공지를 보고 한마음으로 “ 참여하고 싶다 ” 라는 의사를 보여주어 7개소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모꼬지 팀으로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 단체방을 만들어 소통을 이어가며 3가지 주제 중 우리가 가장 보육현장에서 풀어가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어 “ 느리게 걷는 아이와 발 맞추기 ” 라는 주제로 발달 지연이나 또래보다 발달이 느린 친구들을 위한 보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스스로 익히는 공동학습체 ’ 라는 주제에 걸 맞는 내용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업무 분담을 하고 말은바 역량을 보여주며 하나의 계획서가 완성되었을 때,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과정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후회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한지 1주일 조금 경과한 날, 전국 6개팀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 라는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우리가 보육의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뜻깊은 취지에 더 큰 보람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부터 3차에 걸친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과장님,대학교수님의 워크숍으로 막연하고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큰 지도와 도움을 받으며 하나씩 과제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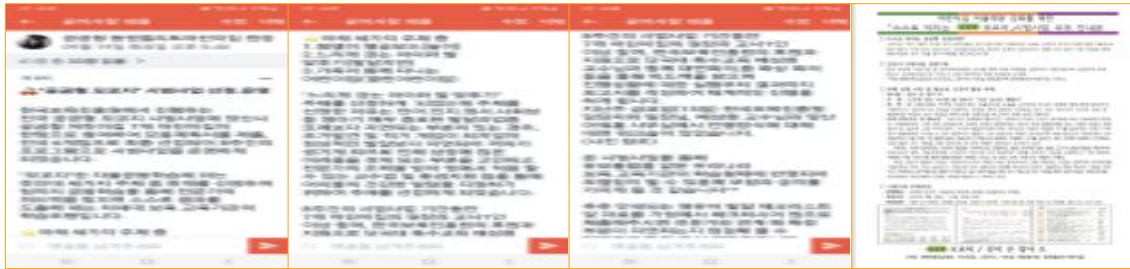


[1차.3차 대면 워크숍 실시 사진]

느리게 걷는 아이와 발 맞추기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던 이유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의 단절도 가속화되었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큰 부분들이 영유아들의 발달을 일정부분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유아들의 발달지연을 단지 ‘조금 느리다’ ‘때 되면 하겠지’ 라는 등의 어른들의 주관적인 잣대로 영유아들의 발달지연을 조기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다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 교수학습, 전문가와의 연계 등을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들을 조기발견 및 적기개입과 지원을 통해 발달격차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의 생애 첫 기관인 어린이집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지연으로 인한 교사들의 교육을 시작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며 자아상태 검사, 긍정적 회복하기, 양육태도 점검, 스트로크 연습 등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부모 공지 및 부모안내문 자료사진]



[교류분석 교사교육 실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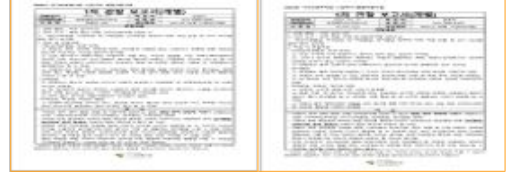
[교류분석 부모교육 실시 사진]

각 가정으로 발달체크리스트 배부 및 발달지연 조기 발견 프로그램을 키즈 노트 안내문을 배부하여 공공형 모꼬지 시범사업의 운영 취지를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2주차 학습과정에서는 전문가와의 연계를 위해 유관기관 섭외를 하게 되었고, 양산시 관내에 소재한 발달장애인을 돕는 ‘시나브로 복지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공공형 모꼬지 7개소를 일정을 계획하여 복지관 치료사가 2인1조로 방문하여 전체 원아를 관찰하여 특이소견이 발견되는 영유아를 선별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였으며, 관찰보고서를 회신받아 부모상담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관기관 직접 관찰 실시 사진]



[유관기관 관찰보고서 회신 사진]



[지역사회 발달센터 정보 공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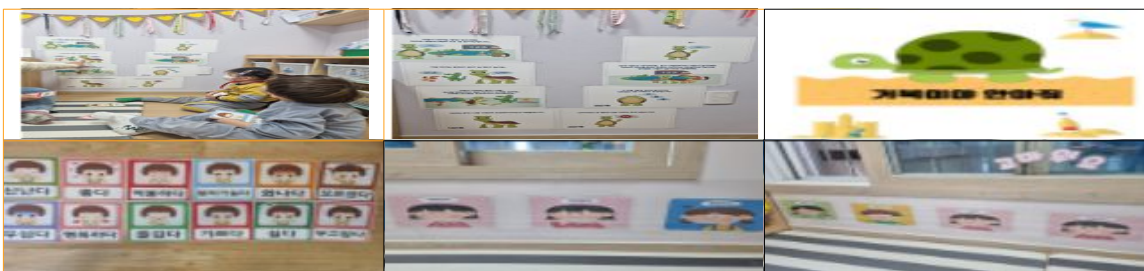
평소 영유아 관찰을 실시하고 담임교사-부모 소통이 이루어지기는 했었지만, 부모님들도 전문가의 소견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어 상담을 연계하기도 하고 필요한 학부모님은 인근 발달센터의 도움을 받기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원에서의 지원으로는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토의하고 개발하여 아동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시작으로 칭찬릴레이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매일 아동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였고 관찰을 하다보니 아동을 칭찬할 일이 더 많이 늘게 되어 긍정적인 행동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동의 칭찬릴레이 기록 사진]

보편적 중재를 위해 기다려주기, 협력하기, 격려하기, 응원하기, 도와주기 등 영유아들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관찰하기와 영유아들의 마음을 스스로 표현 해 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동조절을 도와줘요 터틀 테크닉-거북이 진정법」 「감정카드」 등을 활용하며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가는 방법도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동조절을 도와줘요 터틀 테크닉-거북이 진정법 활용사진」 「감정카드 활용사진」

모꼬지 공동학습체로 다양한 원마다의 아이디어와 실행으로 같은 활용 주제로도 충분히 다양한 활동 연계 및 프로그램의 확장이 가능했던 부분이 효과적인 면에서도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동관찰을 시작으로 유관 기관과는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정기적인 아동관찰 및 지원을 협약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사진]

8주간의 공공형 모꼬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공동체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7개 어린이집이 매일 소통하고 수시 대면 회의를 하며 발달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용자료 및 적용사례를 공유, 수정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과정을 함께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며 스스로 하는 학습 공동체로서의 성과도 얻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